



Korea Institute for Military Affairs

News Letter

대만의 독자형 잠수함 건조와 북한 연계설



Emblem of Republic of China Navy

2016년 5월 20일 취임한 대만 차잉원(蔡英文) 총통은 대만의 독자형 잠수함 건조계획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특히 중국은 대만 차잉원 총통이 『93 컨센서스』를 인정하지 않자 군사적 압박을 가하고 있으며, 이에 대만은 독자형 잠수함을 확보하여 대응하려 한다. 실제 군사전문가들은 대만의 독자형 잠수함 확보를 중국의 군사적 위협을 억제할 수 있는 핵심적 전략 수단으로 보고 있다.

현재 대만 해군은 1973년에 미 해군으로부터 인수한 Guppy급 잠수함 2척과 1982년 네덜란드로부터 구매한 Swordfish급 잠수함 2척 등 총 4척을 보유하고 있으나, 모두가 노후되어 Guppy급 잠수함은 제한된 교육훈련용으로, 하푼(Harpoon) 대잠미사일과 중어뢰(Whitehead torpedo)를 탑재한 Swordfish급 잠수함은 대만 근해에서만 수중작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동안 대만의 독자형 잠수함 건조는 2001년에 미국의 기술지원 하에 추진하기로 계획되었으나, 중국의 압력으로 진전이 없다가 최근 다시 추진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대만은 영국 지브러올터에 위치한 방위중개업체를 통해 비공식적으로 해외기술을 확보하려 하고 있고, 지난 3월에 대만 의회는 2020년 말까지 독자형 시제함(prototype) 설계를 마치도록 결의함으로써 대만의 독자형 잠수함 사업을 공식화하였다. 이에 따라 대만은 2025년에 가오슝(高雄)에 있는 조선소(China Ship Building Corporation: CSBC)에서 1번함을 취역시킬 예정이며, 총 8척을 확보할 예정이다.

그러나 문제는 대만이 자체 건조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해외 잠수함 사업체로부터 기술지원을 받아야 하는데, 중국의 정치·외교·경제·군사적 압력으로 해당 국가로부터 지원받기가 용이하지 않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기술지원을 신청한 국가는 미국,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독일, 인도 그리고 일본 등 7개국이며, 특히 일본의 경우 가와사키(Kawasaki)사와 미쓰비시(Mitsubishi)사가 컨소시엄(consortium)을 형성하여 기술지원을 희망하고 있다.

이런 와중에 지난 4월 9일에 대만 『UP Media 통신사』는 2016년부터 익명의 대만 방산중개업체가 중국을 경유하여 북한 국방위원회가 직접 운영하는 무역중개업체로부터 북한 상어급과 연어급 잠수함 설계 자료와 무급공기추진체계(AIP) 관련 자료를 입수한 것으로 보도하였다.

그러나 미 전략문제연구소(CSIS) 중국연구실장 보니에 글레이서(Bonnie Glaser) 박사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실현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하였다.

우선 지금은 북한이 핵과 미사일 개발로 유엔안보리 경제제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아무리 은밀히 거래를 하여도 나중에 밝혀지면 대만의 독자적 잠수함 사업에 치명적이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대만이 미국 등 서방 국가 조선소로부터 잠수함 설계 및 건조 기술을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북한을 이용하였다는 것이다. 즉, 대만과 기술협력을 원하는 국가가 중국으로부터의 정치·외교·경제적 압력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북한을 이용하였다는 평가이다.

마지막으로 무급공기추진체계(Air Independent Propulsion: AIP)를 갖춘 잠수함을 건조한 경험이 전무(全無)한 북한이 대만이 원하는 첨단 기술을 제공할 수 없다는 평가이다. 현재 AIP 추진체계를 갖춘 잠수함을 건조한 국가는 스페인, 독일, 일본, 중국, 싱가포르 그리고 한국 등이다.

향후 대만 해군이 독자형 잠수함을 확보하는 경우, 동아시아 수중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치열한 잠수함 간 경쟁은 더욱 가속화될 것이다.

* 출처 : The National Interest, October 12, 2018; Defense World, January 15, 2019; Bair Maritime, January 22, 2019; UPI.com, April 9, 2019; Defense World, April 10, 2019; RCN International Outlook, April 11, 2019.